

생명을 위협하는 생활속 공해들

문명사회 공해문제 파헤친 책 잇따라... 생활안전책 제시하기도

환경문제는 더 이상 배부른 서구 복지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일례로 연초에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버리기' 같은 대수롭지 않은 일을 통해 생활전반에 변화를 가져왔다. 환경문제가 생활을 강제하기 시작한 것.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에 나온 환경관련서들은 일상에서 맞닥뜨리게 된 '무서운' 현실 구석구석에 확대경을 들이댄다.

제목조차 섬뜩한 《생활 속의 유해물질-우리는 안전한가》(고와카 준이치 외 엮음, 일일서각) 《자동차, 문명의 이기인가 파괴자인가》(스기타 사토시, 뚝뚝) 《전자파의 공포》(이기준, 대학출판사) 등이 이런 범주에 드는 책.

화학물질 과민증 디워

환경관련 정기간행물이 60여종이나 될 만큼 출판계에도 환경논의가 활발하지만 이 책들은 "환경을 보호하자"는 원론 차원에서 나아가 자동차, 쌀, 세제, 화장품, 패스트푸드, 가전제품 등 일상적인 사물들이 생명에 얼마만한 위협요소가 될 수 있는지, 문명사회의 공해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환경관련서와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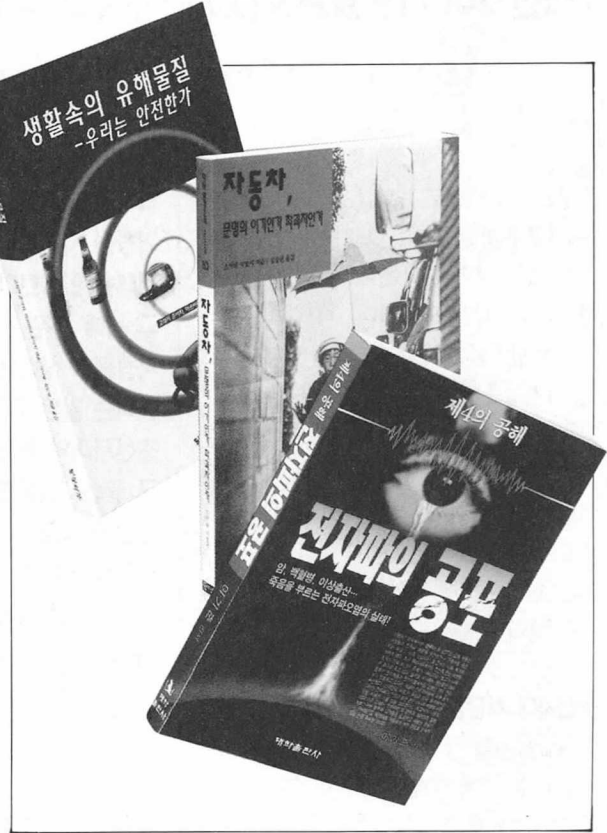
이 가운데 《생활 속의 유해물질...》 《전자파의 공포》는 체험적인 사례를 모은 저널의 성격이 강하다. 《생활 속의 ...》는 농약, 식품첨가물, 석유정제물, 천연가스, 중금속 등이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 과민증'을 문명병으로 규정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피하는 방법을 사전식으로 소개했다. 번역자이면서 현재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으로서 이시재 교수(48, 카톨릭대학교 사회학과)는 "수입 농산물의 보존과 유통과정에서 살포되는 농약이나 화학첨가물을 규제할 어떤 행정조치도 없는 상태"라며 이 책이 시민들의 자구책이 될 수 있으리라고 의의를 밝힌다.

식생활, 주방·생활용품, 미용용품, 현대인들이 겪는 의료문제 등을 다룬 이 책은 다양한 예 가운데 흔히 사용하는 염소계 주방용 세제로 인한 화상이나 실명같은 화학물질의 독성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자구책으로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등은 함유성분을 일일이 확인해 되도록 안전한 것을 사용하도록 권한다. 책에서 예로 든 제품이 모두 일본제품이지만 생활용품의 성분이 거의 엇비슷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생활 속의 ...》가 항목별로 실질적인 정보를 담은 안전백서 형식으로 꾸며었다면 《전자파의 공포》는 저자가 일간지 과학부의 환경 담당 기자로 근무하던 89년 당시부터 모은 전자파의 해독성에 관한 자료를 집대성했다. 전자파에 대한 원론적인 이해를 비롯, 전자파 영향에 관한 외국의 조사 사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에서의 전자파 방출 실태 등 기자답게 국내외의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전자파의 피해를 밝혀 놓았다. 또 전자파가 인공위성·개인휴대통신·멀티미디어사회·고압송전망의 증가와 같은 환경에 의해 더욱 심화되어 갈 것임을

최근 환경관련서는 '환경을 보호하자'는 원론 차원에서 나아가 자동차·쌀·세제·화장품 등 일상적인 생활용품들이 생명에 얼마나 위협한 요소가 될 수 있는지, 문명사회의 공해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이전의 환경관련서와 다르다.



예견한다. 저자는, 개인적으로 침실에는 전자제품을 두지 않는다거나 백열등 스탠드 사용 등 전자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소개해 놓았다.

시민의식 변화 시급

환경전문출판사 뚝뚝이 출간한 《자동차, ...》는 위의 책과는 달리 환경문제에 문명사적으로 접근했다. 뚝뚝의 박은희 편집부장(33)은 "현대문명을 상징하는 자동차를 통해 현대 문명사회가 갖는 환경문제에 사회적으로 접근하고자 했다"고 기획의도를 밝힌다. '인간의 하인으로 태어난' 문명의 이기(利器)가 순식간에 인간 위에 군림하는

'나쁜 주인'으로 표변하는 현대사회를 분석한 것.

혼잡비용이나 대기오염·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 사회적·생물적 약자로 대표되는 교통빈곤층의 양산 등은 교통체계가 자동차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일어나는 가시적인 문제들이다. 그러나 이 책이 주목하고자 하는 문제는 자동차라는 이기가 사람들 사이의 공감, 즉 인간성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빵소니사고, 보험처리과정에서의 보행자 불이익 관행에서 오는 인명 경시풍조, 장애인들을 집으로 몰아 넣는 자동차화가 과연 발전의 옳은 방향인지를 되묻고 있다. —이현주 기자

주요취급간행물

- 신문: NEW YORK TIMES/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LE MONDE/LE FIGARO
FRANKFURTER ALLGEMEINE/HANDELSBLATT
DIE WELT/DIE ZEIT/SOUTH CHINA MORNING POST
ARAB NEWS외
- 시사: NEWSWEEK/PEOPLE/FORBES/BUSINESS WEEK/LE POINT
L'EXPRESS/PARIS MATCH/LE NOUVEL OBSERVATEUR
DER SPIEGEL/STERN/FOCUS/WIRTSCHAFTS WOCHE외
- 컴퓨터: COMPUTER GAMING WORLD/COMPUTER SHOPPER
GAME PRO/UNIX REVIEW/BYTE/PC WORLD
PUBLISH/INTERACTIVITY/VIDEO GAMES외 다수
- 패션: VOGUE/ELLE/COSMOPOLITAN/HARPER'S BAZAAR
VOGUE PARIS/MARIE CLAIRE/DEPECHE MODE
EMPERIO ARMANI/FASHION LINE/NEXT FASHION외
- 기타: INTERVIEW/ENTERTAINMENT/VARIETY /BILLBOARD
ROLLING STONE/SPORTS ILLUSTRATED/GOLF DIGEST외

세계의 신문·잡지



SINCE 1963



韓國出版貿易(株)
Korea Overseas Publications Inc.

정기 구독 안내

- 매일 항공편 직수입 체제로 보내드립니다.
- 가격이 인상되어도 주문시 가격으로 구독하시게 됩니다.
- 원하시는 분께는 「세계의 신문·잡지」 책자와 SAMPLE을 보내 드립니다.
- 전화주문 : (02) 735-5401/3
- FAX주문 : (02) 736-3463, 735-5404
- 우편주문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60